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

길에서, 혹은 지하철에서 사람들의 눈살을 짜푸리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응당 지켜야 할 예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을 품위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품위 있는 사람은 어떤가요?

대화를 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삶과 행동을 보면 신뢰가 갑니다. 넓은 품으로 이웃과 사회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은 때론 불편하기도 하고 손해 보기도 하지만,

사랑하고 배려하는 품위 있는 사람입니다.

사회와 환경에 신세지기보다 기여하고 뜻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한 걸음, 함께 걸어볼까요?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데살로니가전서 4장 12절

✓ 대화

- 끝까지 경청하기 • 조언 말고 공감하기 • 존댓말 사용하기 • 때론 말 아끼기

✓ 이웃

- 다른 의견과 신앙 존중하기 •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기
- 평등한 존재로 대하기

✓ 사회

- 공공예절 지키기 •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기
- 내일을 위한 기후정의 실천하기

